

## 하인두 편평세포암종의 경부 림프절 전이의 유형 및 의의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주영훈 · 선동일 · 조정해 · 박준욱\* · 이성훈 · 최봉진 · 김준엽 · 김민식

**목 적** : 하인두 편평세포암종의 초치료로 원발병소의 절제와 함께 경부청소술을 시행 받았던 환자들의 슬후 조직병리학적 결과를 검토하여 예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부 림프절 전이의 분포와 빈도를 알아보고 이를 환자의 경부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방 법** : 본원 이비인후과에서 1993년 10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외과적으로 적출한 하인두암 중 편평세포암으로 진단된 64예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결 과** : 경부 전이가 총 64예 중 49예(76.6%)에서 있었으며, 내원 당시 임상적으로 림프절 전이가 의심되었던 47예 중 42예에서 조직학적으로 전이가 확인되었고 나머지 5예에서는 림프절 전이가 확인되지 않아서 10.6%(5/47)의 위양성율을 보였다. 동측에 림프절 전이가 의심되어 반대측 경부 절제술을 시행한 39예 중에서는 8예인 20.5%에서 반대측 경부 잠재전이가 확인되었다. 임상적으로 전이가 의심되지 않았던 cN0인 17예 중 7예에서 슬후 림프절 전이가

확인되어 잠재 전이율은 41.2%(7/17)였다. 전이 림프절의 위치를 보면, 동측 level II가 31예(48.5%)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level III가 26예(40.6%), level IV가 17예(26.6%), level V가 6예(9.4%), level I이 5예(7.8%)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기관주위림프절 14예(21.9%), 후인두 림프절 4예(6.3%)의 전이를 보였다. 반대측 전이 림프절의 위치는 level II(8예), level III(5예), level IV(2예), 기관주위림프절(1예) 순이었다.

**결 론** : 임상적 N0 경부의 동측 잠재 전이율이 41.2%에 달하며 N+ 경부의 반대측 잠재 전이 빈도가 20.5%로 나타나, 이러한 경우 예방적 치료가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경부 전이가 의심되는 환자인 경우 경부 치료는 기관주위림프절을 포함하는 포괄적 경부절제술을 시행하여야 하며, 경부 전이가 의심되지 않아 예방적 경부절제술을 시행할 경우 level II, III, IV를 포함하는 선택적 경부절제술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